



그룹 2PM(왼쪽부터 니쿤·택연·우영·준호·준케이·찬성)이 5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왔다. 멤버들이 28일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정규 7집 '머스트' 발매 기념 기자회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JYP엔터테인먼트

원조 짐승돌, 성숙미 더했다

완전체로 정규 7집 '머스트' 발표 30대의 강인함·카리스마 등 담아 '나이에 맞는 자연스러움 보여줄 것'

'원조 짐승돌'의 귀환이다. 2세대 대표 아이돌 그룹 2PM(준케이·니쿤·택연·우영·준호·찬성)이 5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왔다. 20대 후반 마지막 앨범을 발표하고 군 복무에 돌입했던 이들이 "30대의 매력을 한껏 머금고" 팬들 앞에 다시 섰다. 2PM이 28일 오후 정규 7집 '머스트'(MUST)를 내놓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들은 이날 "2017년 마지막 콘서트에서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여섯 멤버가 함께 앨범을 선보이는 건 2016년 9월 정규 6집 '젠틀맨스 게임'(GENTLEMEN'S GAME) 이후 5년 만이다. 2PM은 그동안 일부 멤버가 데뷔 이후 한동안 몸담았던 JYP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끝나 소속사를 옮겼고, 이로 인해 완전체 활동의 가능성도 사그라지는 듯했다. 이에 이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준 팬들이 정말 고맙다"면서 "꿈에 그리던 순간이 올 줄 몰랐는데 감회가 새롭다. 막상 무대에 서려니 설렌다. 긴장감으로 다시 열심히 뛰어보려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8년 데뷔한 2PM은 '하트비트',

'10집 만점에 10집', '어게인&어게인', '나가 밍다' 등 히트곡을 내놓으며 사랑 받았다. 특히 멤버 전원이 180cm가 넘는 키에 탄탄한 몸매를 갖춰 '짐승돌'이라는 타이틀을 얻고 여심을 사로잡았다. 최근에는 멤버들의 군 복무 기간이었던 2015년 발표한 '우리집'의 무대 영상이 재조명되면서 각종 온라인 차트에서 역주행 인기를 끌었다. "사실 '우리집'이 정말 예상치 못하게 큰 사랑을 받았어요. 준호의 섹시함이 담긴 '작별'의 성과가 가장 컸지요. 하하! 워낙 주위에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화제도 돼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컴백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공백기에도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것에 감

사할 따름이죠. 부담은 컸지만, 화제의 탄력을 받고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섹시함은 30대가 된 지금 더 돋보인다. 이들은 "30대 본인의 매력이 묻어 나와 그러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번 새 앨범에도 특유의 카리스마와 강인함을 고스란히 담았다. "20대에 패기와 열정이 강했죠. 젊음의 에너지를 내뿜으려고 했으니까요. 이번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때그때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섹시 끝판왕'이라는 타이틀은 너무나도 과분하고 쑥스러워요. 우리 나이에 맞는, 무르익어가는 자연스러움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오컬트' 영화 동시 습격...7월의 여름밤 섬뜩

'제8일의 밤' 불교 경전 금강경 모티브 '방법:재차의' 연상호표스크린 확장판 태극 시골마을 배경 '랑종' 기획력 곳

올해 여름 유난히 서늘해진다. 미스터리한 초자연적 현상을 그리는 '오컬트' 영화가 공포와 스릴러 등 짙은 장르적 색깔을 덧입혀 무더운 분위기를 녹일 기세다. '제8일의 밤'과 '방법:재차의', '랑종' 등이 스크린과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초현실적 이야기를 선보인다. '제8일의 밤'(감독 김태형·제작 곱픽처스)은 세상이 고통과 어둠만이 존재하는 지옥으로 변하기 직전 '꺼어나서는 안 될 것'의 봉인이 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펼쳐지는 8일간의 사투를 그린다. 2500년 전 지옥문을 열

려던 요소를 부처가 가뒀다는 불교 경전 금강경의 이야기를 모티브 삼았다. 7월2일 OTT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한다. 영화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이 각본을 쓴 '방법:재차의'(감독 김용완·제작 클라이맥스 스튜디오)는 지난해 tvN 드라마 '방법'의 스크린 확장판이다. 좀비와는 또 다른 파괴력을 지닌 '재차'라는 초자연적 캐릭터를 내세워 연쇄살인사건에 얽힌 이야기를 담는다. 7월28일 개봉하는 영화에는 드라마에 등장한 엄지원과 정지소가 다시 한번 사건을 풀어간다. 이에 앞서 7월14일 선보이는 영화 '랑종'은 '곡성'의 연출자 나홍진 감독이 기획·제작해 일찌감치 화제에 올랐다. 태극 반종 피산다나운 감독과 협업해 완성된 영화는 태극 북동부의 시골마을을 배경으로 무당인 랑종과 가족에게 닥친 미스터리한 현상을 그려낸다. 이미 '곡성'으로 오컬트적

감성을 자랑한 나 감독의 기획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오컬트는 2015년 '검은 사제들' 이후 '곡성' '사자' 등 상업적 틀 안에서 한국영화의 새로운 장르로 차츰 자리 잡아 왔다. 배우들은 이색적인 스토리와 캐릭터를 구현하며 연기력을 발산할 수 있는 무대가 되어 왔다. 연출자들도 초자연적 현상과 그에 얽힌 미스터리한 사건을 비교적 대중적 시선으로 그려내며 개성을 드러내 왔다. '제8일의 밤'의 주연 이성민은 28일 자신의 새 작품을 "한국형 오컬트 영화"라면서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상상력이 많이 필요했다. 연기를 위해 정서적으로 많은 준비를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극중 캐릭터는 일반적인 사람은 보지 못하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다"면서 이 영화의 "중요한 심장은 깨달음이다"고 밝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제8일의 밤'



'방법:재차의'



'랑종'

요리 아이콘이 된 성시경

부캐 '성식영' 활약...요리소재 예능 섭외 1순위 '백종원 클래스'선 외국인들에게 한식 가르쳐



성시경

가수 성시경이 '부캐'(제2의 캐릭터)인 '성식영'으로 맹활약 중이다. 취미삼아 배워온 요리 실력을 앞세워 다양한 관련 예능프로그램을 휩쓸고 있다.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과 진행자로 나섰던 행보와도 사뭇 달라 눈길을 끈다. '부캐'의 시작은 '성식영'이라는 아이디(ID)로 운영 중인 개인 SNS이다. 해당 계정에서 들기름 막국수·삼겹살·마파두부·에플레어 등 직접 만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 두 달 전부터 '성시경'이라는 개인 유튜브 채널로 공개하고 있는 각종 요리 비법이 온라인상에서 끊임없이 공유될 만큼 인기다.

20여년 동안 발라드 가수로 팬들을 만나온 성시경의 요리 실력이 신선하다는 반응은 예능프로그램 제작진의 '섭외 러브콜'로 이어졌다. 최근 요리 소재의 MBC '불뿔간 신선놀음'에 이어 4월9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채널S '신과 함께'의 진행자로 나서고 있다. 각종 술과 어울리는 안주를 소개하고, 이에 얽힌 시청자 사연도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일회성 출연자로 나섰다가 요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차분한 입담이 프로그램에 딱 맞다는 평가를 얻어 뒤늦게 고정 출연자로 합류했다.

28일부터는 백종원 대표와 함께 KBS 2TV '백종원 클래스'에도 출연한다. 백 대표가 직접 제안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서 외국인들에게 한식을 가르친다. 영어 소통 능력까지 발휘하며 중심 진행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는 이날 첫 방송에 앞서 "요리 자체가 재미있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한식을 해외에도 알릴 수 있어 뿌듯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NS윤지, 9월 사업가와 결혼



NS윤지

가수 NS윤지(김윤지·33)가 9월 결혼한다. 28일 NS윤지는 SNS를 통해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 9월 결혼식을 올린다"며 "앞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예비신랑은 5살 연상의 사업가이자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지인으로 알려졌다. NS윤지는 "부족한 저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한결같은 믿음을 주는 성실하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NS윤지는 2009년 '머리아파'로 가요계에 데뷔했으며, 최근 tvN 드라마 '마인'에도 출연했다.

경찰 "박나래 영상 음란물로 볼 수 없어"



박나래

개그우먼 박나래의 웹 예능 콘텐츠 성희롱 논란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를 받은 박나래를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박나래는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와플의 '헤이나래'에서 남자 인형을 소개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박나래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영상도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훈 딸 경민·윤진식, 내달 16일 웨딩마치

중년 연기자 윤다훈(남광우·56)의 딸인 연기자 남경민(34)이 두 살 연상의 동료 연기자 윤진식(36)과 7월16일 결혼한다. 남경민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웃음 가득 알콩달콩 살게요"라는 글과 웨딩촬영 사진을 공개했다. 2010년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로 데뷔한 남경민은 '학교 2013',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 등에 출연했다. 윤다훈은 과거 시트콤 '세 친구'로 인기를 얻을 당시 미혼부인 사실을 고백했다. 이 일로 한동안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가 딸과 함께 예능에 출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웹사이트 '솔로 말고 멜로' 7월24일부터 OTT 상륙

위키미키 최유정·김도연 주연 드라마

그들 위키미키의 멤버 최유정과 김도연이 주연한 웹사이트 '솔로 말고 멜로'가 일본에 상륙한다. 한류스타를 앞세운 장편 드라마와 영화가 일본 한류의 주류를 형성하고, 웹툰과 웹소설 등이 그 뒤를 잇는 가운데 한국 웹드라마도 새로운 콘텐츠로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솔로 말고 멜로'

'솔로 말고 멜로'는 7월24일부터 일본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홀투를 통해 선보인다. 지난해 10월20일 8부작 분량으로 국내에서 모바일과 PC 등 이용자를 만난 '솔로 말고 멜로'는 일본 홀투가 독점 공개한다. '솔로 말고 멜로'는 최유정과 김도연 등이 주연해 남녀공학 세어하우스에 입주한 두 여자를 중

심으로 펼치는 좌충우돌 로맨스의 웹사이트이다. '솔로 말고 멜로'의 일본 '진출'은 한국 웹드라마가 일본에 안착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또 하나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올해 1월 '나의 별에게'가 일본에서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장편드라마와 영화에 이어 웹툰과 웹소설 등도 글로벌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국내 대형 포털의 힘으로 현지에서 시장을 확대해왔다. 이제 웹드라마도 그 보폭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해외시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최근 오리온뉴스 등 일본 언론들은 "한

국 웹드라마가 15분 안팎의 분량으로 모바일을 통해 언제든 재생할 수 있는 동영상 콘텐츠로, 케이팝 아이돌을 비롯한 젊은 스타들을 내세운 작품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인 등용문으로서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류 콘텐츠가 20~30대 사이에서도 폭넓게 소비되면서 현지 젊은층에게도 소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웹드라마는 한류 콘텐츠로서 또 다른 성장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